

아홉째 주 ; 聖 化(SANCTIFICATION) – 둘째 주

정의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의 과정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죄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죄의 두목인 사탄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천년왕국 후입니다(계 20:7, 10). 하나님은 그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도구로써 사탄을 그대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앎(Knowledge)

다음의 구절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줍니까?

롬 6:6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에 대해 무엇을 선언합니까? _____

롬 6:9

<알아야 할 세가지는 무엇인가?>

1. 믿는 자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_____

롬 6:6

2.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롬 6 :6) ?

3.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롬 6;9

<여 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알았을찌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잡니다.

그러면 왜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요? 그것은 옛사람의 죄의 습관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으나,
우리는 너무 오랜동안 죄의 종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옛사람이 살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새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롬 6: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
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
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 현 신 >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드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것,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리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옛사람을
그대로 올려 놓읍니다. 옛생각, 옛습성, 옛버릇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방패로도 쓰시고, 창으로도, 칼로도 씹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를 주시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따라 봉사할 때 성령님은 30 배, 60 배, 100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롬 6:12-13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II.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화된 삶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돌비에 새겨진 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법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선언합니까?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 : 22

갈라디아서 5 : 23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IDENTIFICATION 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 : 49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_____

롬 8:1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롬 8:2

2.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8 : 4

<성령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새사람의 삼각 관계>

과거에는 죄와 옛사람과 율법이 삼각 관계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성령과 새사람과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율법이 삼각 관계를 이룹니다.

에스겔 36 :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성령)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사람)

에스겔 36 :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마음에 새겨진 율법)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대체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죄가 거하는 대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_____

고린도전서 3 : 16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문학 선생으로 있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_____

예레미야 31 : 33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태어난 새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 : 24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선>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 : 16

바울 사도는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 생각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합니까? _____

로마서 8 : 5

로마서 8 : 6

골로새서 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 : 2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였음이니라

지속적 성화의 삶을 위해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 : 13

< 점진적 성화 >

성화는 우리의 생애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성화를 마치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하여 확실히 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 :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해가는 성화, 여기에는 완성이 없다.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며,

2.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이것은 완성된 상태는 있으나 고정된 상태는 없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주관치 못한다' 는 말은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